우두자국의 비밀

신좌섭(의사, 한국의학사)

1. 아즈텍을 정복한 천연두

윌리엄 H. 맥닐은 『전염병과 민족(Plagues and Peoples)』이라는 책에서 스페인의 코르테즈가 600명도 되지 않는 부하를 거느리고 멕시코 원정에 나서서 수백만 명이 넘는 아즈텍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천연두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즈텍 군이 코르테즈와 그의 부하들을 수도로부터 몰아내고 많은 피해를 입혔던 날 밤 천연두가 창궐하였는데, 치사율이 높은 이 전염병은 아즈텍인의 집단 활동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반면에 스페인 군에게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았다. 유럽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천연두를 접하여 면역력을 갖고 있었지만 아즈텍인들은 그때까지 천연두를 접하지 않아 면역력을 갖지 못했던 탓이다.

자신들의 진영만 저주 같이 휩쓰는 이 질병은 아즈텍인들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아마도 아즈텍인들에게 코르테즈의 군대는 신의 사신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맥닐에 의하면 아즈텍이 군사적으로 정복된 이후 그 찬란한 문명까지 완전히 포기하게 된 데에는 이 같은 심리적 굴복의 영향이 컸다. 천연두는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아서 이처럼 이민족간의 접촉 기록에 종종 등장하는 역사적 주제이다.

천연두는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아서 이민족간의 접촉 기록에 종종 등장하는 역사적 주제이다

2. 천연두에 대한 우리 나라의 기록

우리 나라의 천연두에 관한 기록으로 믿어지는 최초의 기록이 일본의 역사책에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흠명왕 13년(서기 552년)에 백제 성명왕(聖明王)이 석가불 금동상을 보내왔는데 소아도목(蘇我稻目) 등이 이를 숭배하고 사찰을 건립하자 국신(國神)의 노여움을 사 포창(疱瘡)이 유행하였다고 한다. 이때 유행한 질병은 기록된 증상으로 보아 천연두 혹은 홍역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한일 간의 전파기록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며 특히 735년(일본 천평 7년,

신라 성덕왕 34년)의 기록은 명확히 천연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천연두로 추정되는 우리 나라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등장한다.

신라 선덕왕과 문성왕은 각각 785년과 857년에 질진(疾疹)으로 사망하였는데, 기록된 증상으로 보아 이 질진은 천연두로 보인다.

한편 우리 나라 의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의 『향약구급방』 하권 소아잡방의 소아완두창(小兒豌豆瘡)이다. 민간 구급서인 이 책에서 천연두가 소아의 질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고려시대에는 천연두가 이미 우리 나라에 정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질병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면 특정 연령 이상은 면역력을 획득하여 점차 소아 연령층의 질병으로 정착되는 양상을 갖게 되는 것은 질병의 역사에 있어서 잘 알려진 법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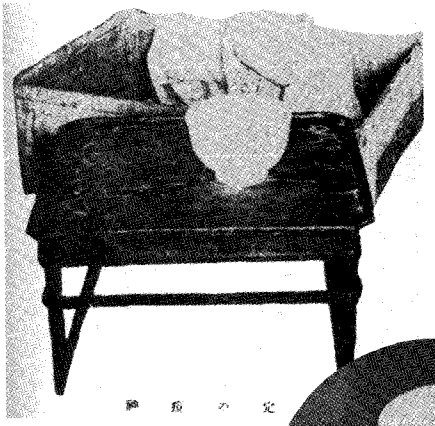
어느 정도 조밀한 주거 형태를 갖추게 된 한 인구 집단이 천연두와 같이 전염력이 높은 질병에 처음 접하게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병에 걸리지만, 같은 질병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면 특정 연령 이상은 면역력을 획득하여 점차 소아 연령층의 질병으로 정착되는 양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질병의 역사에 있어서 잘 알려진 법칙이다. 즉 고려시대에는 이미 어린 시절에 천연두를 앓고 면역을 획득한 사람들만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천연두의 원인과 치료

완두창, 창진(瘡疹), 두창, 두역(痘疫), 두진(痘疹), 대소창진(大小瘡疹), 백세창(百歲瘡: 일생에 한번은 걸리는 병이라는 뜻), 시두(時痘: 예방을 위해 인위적으로 걸리게 하는 종두에 대비하여 붙인 이름으로서 '천연두'라는 명칭도 이 같은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등으로 불린 천연두의 원인으로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두신(痘神)설이다. 두신은 호귀마마, 객신(客神), 서신(西神)이라고도 불려 이것이 중국에서 유래한 귀신으로 여겨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태독과 운기(運氣)도 천연두의 원인으로 생각되었다. 전염설도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은 물론 오늘날 생각하는 미생물학적인 전염설은 아니며 환자에게 근접하면 병에 옮는다는 정도의 뜻이었다.

두창의 치료법으로는 병의 원인인 두신을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한 방책으로 여겨졌다. 예부터 많은 질병이 귀신의 소행으로 여겨졌지만, 천연두 귀신은 '중국 강남에서 온 것으로 대우의 선악에 따라 이해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면 집안에 감실(龕室 신주를 모시는 장)을 만들어 궤짝 안에 옛날 옷을 넣고 이것을 두신으로 정하여 청수를 바친 다음 13일간 여러 가지 공헌물을 바치고 매일 예배하면 마마자국이 남지 않고 낫는다고 하였다

▶우두법 도입의 선구자, 송촌 지석영 선생

▲천연두 환자가 발생한 집 바깥문에다 백지로 만든 깃발에 '호구별성공사령기(戶口別星公使令旗)'라고 써서 게양하며, 이곳에 두신이 체재하였다는 표시를 하고 귀신에게 공손히 대접을 하였다.

(利害)가 있다'고 하여 특히 공손히 모시는 것이 권장되었다〈사진 좌상〉. 두신은 매우 결벽하고 신경질적이어서 불결하고 부정한 것, 냄새가 나는 것을 삼가지 않으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믿었다. 또한 천연두 환자가 있는 집에는 두신이 머물고 있다는 표식을 하고 공손히 모시기도 하였는데〈사진 우상〉, 여기에는 전염을 피하라고 이웃들에게 경계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두창이 집안에 발생하면 이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이웃으로 피하도록 권장되기도 하였다.

의약 치료로는 적소두(赤小豆)와 흑두, 녹두에 몇 가지 약재를 넣어 다린 삼두음(三豆飮), 토끼피를 주약재로 한 희두토홍환(稀痘兎紅丸) 등이 사용되었다. 콩 모양의 창진을 일으키는 질병에 콩이 주약재로 쓰인 것이 흥미롭다.

4. 두창의 예방법

두창의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역신이 다닐 수 있는 큰길과 부락으로 들어오는 동구나 마을 뒤의 고갯마루에 무서운 장승을 세워서 겁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아미산의 신인(神人)이 두신을 물리쳤다는 의서의 기록에 따라 '이곳은 아미산의 신인이 있는 곳이니 두신은 물러가라'는 경계의 의미로 마을입구의 다릿목에 장승을 세우기도 하였다.

오늘날 천연두가 사라진 데에는 우두법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이전에는 천연두의 발원지인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온 인두법이 존재하였다. 우두법이 천연두에 걸린 송아지의 고름을 채취하여 접종하는 것인데 반하여, 인두법이란 천연두에 걸린 사람에게서 채취한 고름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이다. 인두법에는 장묘법(漿苗法:고름을 따서 솜에 적셔 콧구멍에 넣는 방법), 의묘법(衣苗法:고름이 생긴 아이의 속옷을 벗겨 건강한 아이에게 입히는 방법), 한묘법(旱苗法:딱지 분말을 은관이나 거위 깃털로 만든 관에 채워넣고 이것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 수묘법(水苗法:딱지분말을 물에 녹인 다음 솜에 적셔 콧구멍에 넣는 방법)이 있었는데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매우 이채로운 방법들이다.

이중에 우리 나라에서 사용된 방법은 1790년 박제가가 연경을 다녀오면서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집(與猶堂全集)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지금도 30-40대의 어깻죽지에 남아 있는 우두자국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천연두의 위력을 어렴풋이 기억하게 한다

5. 요약

천연두는 그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 때문에 근세에 이르기까지도 인구의 감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국가적 질병이었다. 따라서 19세기말 근대화의 문턱에서 부국강병을 꿈꾸던 우리 나라 근대 지식인들은 천연두의 박멸을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특히 송촌 지석영 선생은 천연두의 박멸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우두법을 수입하고 이의 보급에 평생을 바쳤다〈사진 좌〉

우두법의 덕택으로 이제는 길거리에서 곰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지만, 지금도 30-40대의 어깻죽지에 남아 있는 우두자국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했던 천연두의 위력을 어렴풋이 기억하게 한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질병은 사라져가지만 그에 얽힌 인류의 애환과 번뇌는 다채로운 역사와 삶의 양식을 조명하는 훌륭한 교훈으로 역사 속에 살아 남는다.